

7. 대상자가 호소한 신체적 증상은 “피로감”(70.0%), “가래”(50.0%)이며 대부분이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(93.8%).

8.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저 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가족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교육정도($F = 2.552, p = .046$)이고,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수도 주거소유($F = 3.113, p = .045$)이며, 이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주거소유($F = 3.113, p = .031$)이다.

결론적으로 결핵 환자에 있어서 가족지지, 우울, 이행과는 상관관계가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환자의 이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지지를 높이고, 우울을 감소시키는 간호중재방법을 수립하고 각 환자 개인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간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.

2. 제 언

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. 이행을 높이는 요인에 대한 간호중재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고, 이 중재방법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실험적 분석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더욱 필요하다.

부산·경남지역의 보건소간호사의 업무수행 실태 조사

부산의과대학 잡지 제27권 제2호, 1987.

황 보 선

1987년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부산지역 보건소 간호사 90명, 경남지역 보건소간호사 159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간호분과학회에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보건사업 영역별 업무수행과 업무수행의 필요성 인지정도를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보건소간호사의 총 보건사업의 업무수행정도를 보면 부산지역은 2.53, 경남지역은 2.51이었다. 각 사업영역별로 업무수행도가 가장 높았던 것을 보면 부산지역은 가족계획이 3.03이었고 경남지역은 사업계획이 3.11로 나왔다.

2. 보건소간호사의 총 보건사업의 업무수행의 필요성 인지도를 보면 부산지역은 3.32, 경남지역은 4.26이었다. 각 사업영역별로 업무수행의 필요성 인지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을 보면 부산지역 경남지역 모두 결핵관리로 3.76, 4.58로 나왔다.